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 부활

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 및 유공자 표창식」이 수상 시·군·구 대표, 유공자, 환경부 장관을 대신한 조병옥 자원재활용과장, 노상철 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내빈, 지명석 회장 등 협회 회원사 대표, 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거행되었다.

지명석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70%에 달하는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을 올리기까지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협회도 장기 재활용 목표 75% 달성과 재활용제품의 해외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스티로폴 재활용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소형가전제품완충포장재의 스티로폴 재질 사용금지 등 완화해 줄 것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표창 및 격려사를 할 예정이던 환경부 전병성 자원순환 국장은 마침 시작된 국정감사 때문에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조병옥 과장이 대신한 격려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수거·운반 뿐 아니라 직접 재활용까지 담당하는 스티로폴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금년도 스티로폴 최우수지자체로는 스티로폴 단독 감용동 운영, 2006년도 잉고트 199톤 생산, 영상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성공적 주민 홍보 등의 성과를 올린 경상남도 김해시가 뽑혀 환경부 장관 표창, 협회장 공로패를 받았으며 상금 500만 원,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등을 부상으로 수상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동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15개 시·군·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협회장 공로패와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등을 받았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 윤강현 팀장(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집행), LG전자 윤성필 과장(가전 스티로폴 회수 재활용 협조), 현대기계 이용식 대표(사업자용 스티로폴 재활용 설비 개발 보급), 송정수지 문철영 대표(경기 북부지역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 대보산업 변태옥 대표(대구·경북지역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 환경전문지기자회 박성열 회장(스티로폴 재활용 적극 보도) 등이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상식은 수상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협회장 축사, 환경부 장관 격려사가 있었으며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김해시의 수범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자원순환연대 홍수열 팀장의 「발포합성수지 사용 및 처리실태 조사·보고」가 이어졌다. 다른 품목과는 달리 직접 재활용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자원재순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던 「EPR지원 유공자 시상」행사로 대체되었다가 환경부가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금년부터 협회 단독행사로 부활하여 지자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